항고기각 사건 공정 처리 시민단체 임원 참여 확대

광주고검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은 20일 항고기각사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시범 실시해 온 항고심사위원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광주고검이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광주지역 시민단체 임원 4명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2개 검사실에서 운영해 왔다. 광주고검은 항고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해본 결과 종전보다 신중한 기록검토가 이뤄졌으며, 사건처리도 충실해졌다는 내부 평가를 내리고 이를 전면 확대키로 결정했다.

광주고검은 이날 변호사와 법과대학 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이뤄진 기존의 항고심사회를 확대해 시민단체 임원 6명을 추가로 항고심사위원에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항고심사위원은 ▲나신영(61)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총무 ▲김갑숙(59) 광주 YWCA회장 ▲박원영(59) 광주 YMCA이사 ▲김재석(45)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정철웅(59)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오병조(58) 바르게살기운동 광주협의회 회장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매월 1차례 항고심사회에 참석해 항고기각 결정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주임검사의 설명을 듣고 10건 안팎의 항고기각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고검은 항고심사위원회 제도를 앞으로 전주지부와 제주지부에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쩍새 둥지 떠날 때까지 "쉿~" 270년 된 팽나무 외과수술 중단

'어린 소쩍새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한다.'

신안군이 20일 압해면 고이도리 칠동마을에 있는 수령 270년된 팽나무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외과수술을 하던 중 천연기념물 제 324호로 지정된 소쩍새 둥지가 나오자 내린 결정이다. 2.5m 높이에 자리한 둥지에는 부화한 지 10~12일된 새끼 4마리와 어미새 1마리가 발견됐다. 〈사진〉

군 관계자는 "팽나무 썩은 곳을 자르기 전 검사 때 발견되지 않은 소쩍새 둥지가 나와 깜짝 놀랐다"면서 "이 어린새가 커 둥지를 떠날 때까지 20여일간 공사를 중단키로 하고 보호조치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전남지회 박수철 지회장은 "소쩍새가 고이도에서 발견되기는 처음인 것 같다"면서 "어린 새끼를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조치까지 취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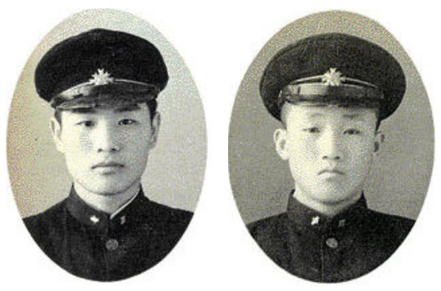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대한민국 입법·사법부 首長은 동기동창

광주 서중·일고 "경사났네"

'대한민국에 광주 서중·일고 독재(?)가 시작됐다'

광주 제일고가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首長)을 배출하는 유례없는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해 9월 이 학교 4회(통합 34회)출신 이용훈(64) 변호사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오른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이 원장과 고교 동기 동창인 임채정



광주일고 4회 졸업앨범에 나온 임채정(왼쪽) 의장과 이용훈(오른쪽) 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어 임채정 국회의장 배출

(65) 의원(열린우리당)이 제17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보성 출신인 이 원장과 나주가 고향인 임 의장은 광주 서중(1956년)과 일고(1959년) 동창생으로, 고교 2학년 때는 같은 반 급우였다. 고교 시절 이 원장은 줄곧 학급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던 반면, 임 의장은 30등 안팎의 성적을 유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차분한 성격의 이 원장은 서도(書道)반 활동을 했고, 성격이 쾌활한 임 의장은 2년 때부터 문예반에 들어갔으며, '새밝회'를 조직하는 등 사교성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를 졸업 후 이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임 의장은 고려대 법대를 진학했지만 훗날 판사와 기자라는 다른 길을 걸었다. 법조계에서 38년 동안 외길을 걸어온 이 원장과 달리 임 의장은 지난 1975년 자유언론수호투쟁으로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뒤 재야 운동가로 변신했고, 옥고를 치르는 등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1987년 정치권에 뛰어들어 20년 만에 입법부 수장까지 올랐다.

국회의장 선출 보도가 나온 20일, 광주시 북구 누문동 '광주일고 서중 31회 일고 4회(34회) 동창회관'에 모인 동창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동창생들은 "입법·사법·행정의 두 수장을 서중·일고 동창이 장악, 이러다 삼권분립(三權分立) 정신이 훼손돼 한국에 '광주서중·일고 독재'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고 웃었다.

동창회 이복조(67) 총무는 "(이)용훈이는 동창회 모임 때면 친구들에게 '(임)채정이는 국회의장 감인데 내가 먼저 사법부 수장에 오른 탓에 국회의장이 못 되는 것 아니냐'고 항상 미안해 했다"면서 "채정

고교 2학년 때는 같은 반 동문들 "엄청난 일" 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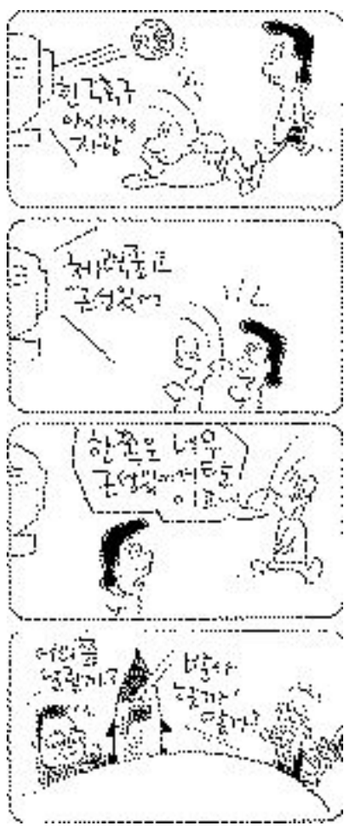
이가 국회의장에 선출되자 동창들 가운데 용훈이가 가장 기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고 4회 동창회 유찬영(67) 회장은 "정부 3부 요인 중 두 명이 같은 학교 동기라는 것은 엄청난 일"라며 "이런 경사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활짝 웃었다.

광주 제일고 한종관(59) 교장은 "한 학교 동기들이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을 맡은 것에 대해 후배들이 모두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서 "두 수장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참 〈6858〉 김종두



광주 '금남공원' 분수 첫 물줄기 20일 낮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서면서 시민들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한국은행 터에 마련된 '금남공원'분수를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금남공원 분수는 무등산 서석대 형상을 한 높이 4.5m · 길이 21m의 벽천(壁泉)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도록 설계돼 있다. 야간에는 환상적인 빛의 하모니가 물안개와 섞이게 된다. 오는 29일 정식 개장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채팅남에 "결혼하자" 속여 1억여원 가로챈 20대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남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여·26·청주시 상당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이모(22·대학 휴학생)씨와 지속적으로 채팅을 하면서 '결혼하자'고 속여 1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의 부모는 대인기피증에 걸린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에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보냈고, 김씨는 이를 악용, "카드빚을 갚아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채팅 사이트에서 회원관리를 맡고 있는 김씨는 이씨의 접속 여부를 알려주는 아르바이트생(김모씨·여·25)까지 두고 이씨가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농협 하나로마트 털이범 검거

해남경찰은 20일 송지면 땅끝농협 등 해남지역 하나로마트 두 곳에 침입, 400여만원을 훔친 임모(62·전북 익산시 남중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kwangju.co.kr

휴가 군인 강도짓…경비원에 '덜미'

쌍나팔

○…휴가나온 군인이 휴가비 마련을 위해 강도짓을 벌이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붙잡혀 경찰서행.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임모(여·26)씨를 흉기로 위협,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미수)로 육군 모부대 소속 김모(21)이병을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

○…김 이병은 아파트 계단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도망치던 중 아파트 경비원에 붙잡혔는데, 김 이병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하려는데 용돈이 없어 나쁜 짓을 하게 됐다"고 뒤늦은 후회.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